

#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

펠라기우스논쟁과 <고백록>

#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내는 편지

“내가 윤리적인 교육과 거룩한 처신에 관하여 말해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한 일은, 우선적으로 본성의 본질과 그 속성을 논하고 인간 본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하여 이로부터 청중에게 덕의 모범이 되도록 자극하는 것이었다. 우선, 아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만이 유익하다. 희망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도덕의 길을 갈 수 있으며, 체념은 우리의 노력과 행동을 무너뜨릴 뿐이다. [...] 본성이 선하다는 사실이 강조되면 될수록 삶의 방식은 점점 더 완전해진다. 이 생활방식을 위해 지침을 주어야 한다. 자신 안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결국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어 버린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본성은 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창조자, 즉 하나님과 견주어서 인간 본성의 위대한 선이 어떠한지를 측량해야 한다.

1. 죄 짓는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 오직 죄란 상속될 수 없는 일종의 신념이고 의지의 행동이다.
3. 죄론은 은총론에 상응한다.

=> 유아세례를 거부, 원죄 거부 : 죄의 용서를 가능케하는 유아세례를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였던 시점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안에 의로움과 절제와 경건과 순결을 갖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오류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들[펠라기우스주의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올바른 지식을 계시해 주시는 것외에는] 바른 행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좋아 하며 올바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고 그저 하나님의 교훈(가르침) 안에 있다는 것이다.

# 아우구스티누스의 죄와 은총론

1. 처음 은총의 상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 *posse non peccare, posse non mori* )
2. 아담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그가 범죄로 악, 즉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를 선택하는 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한 것이다. 그 벌로 무지(*ignorantia*), 탐욕(*concupiscentia*), 멸망(*mortalitas*)이 뒤따른다.

# 인간의 원죄

1. 인간 본성의 타락이 어떻게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로 전환

(1) 로마서 5장 12절 :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기라고 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2) 시편 51:7, 욥기 14:4

(3) 육체적으로 원죄전달 - 원죄는 성욕에 의해 전달된다. 인간은 출생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다.

죄는 모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식행위를 추구하는 탐욕에 의하여 이식된 것이다. 그러므로 탐욕은 죄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 2. 죄의 개념

1) 탐욕 - 인간적인 본성의 착오 - 성적인 의미

2) 교만 - 하나님에 맞서는 자기 사랑

3.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오직 악을 행할 수 있을 뿐이며 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다.

4. 인간은 원죄로 인해 부패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다.

# 아담의 범죄 이래 인간성은 죄의 억압 아래에 있다.

1. 로마서 5장 12절 -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이다. 죄는 무조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죄는 모든 인간의 탐욕 속에 계속 살아있다.

2. 율법과 복음의 관계 - 범죄 이후의 의지는 율법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입증하며 징벌의 공포로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한다.

(1) 죄의 용서 (remissio peccatorum)

(2) 자비의 주입 (influsio caritatis)

# 루터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차이

신앙 이전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1) 루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신앙 가운데 수여되어 의롭게 하는 참된 기초이다.

2) 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영적인 방법으로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의롭게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다.